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경루동에 일떠선 보통강강안 다락식주택구를 돌아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구역 경루동에 일떠선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돌아보시었다.

경루동에 일떠선 특색있는 다락식주택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는 각 부문의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겨주는 사랑의 보금자리이다.

우리 인민들의 보다 유족하고 훌륭한 생활조건과 수도의 문명수준, 주체건축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한해 전 경치좋은 수도중심부의 보통강기술 명당자리에 다락식, 다층, 소층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특색있는 주택구를 일떠세울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고 지난 1년간 수많은 설계형성안들을 검토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며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일떠선 새로운 형식의 특색있는 주택구는 주민들의 생활에 최대의 편의를 보장해줄수 있게 훌륭히 건설되었으며 호화로운 살림집들이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게 형성되고 이 일대의 원림



특화가 개선됨으로써 도시의 문명수준과 보통강반의 풍경이 천지개벽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택구를 오랜 시간 돌아보시면서 지난 1년동안 건설자들이 당의 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당결정관철을 위해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건설자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로력적헌신에 의하여 수도의 중심부에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고 현대성과 편리성이 훌륭히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주택구건설의 본보기가 창조되었다고, 당중앙은 이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루동에 일떠세운 본보기적인 새로운 형식의 주택구 건설경험은 전국적판도에서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목표물에 우리 당이 내세운 당면한 중앙과 지방의 건설과업 집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앙과 지방의 각급 설계기관들에서는 이와 같은 건축 및 경관설계에서 확립한 기준, 이

러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받아들이고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에 맞게 분야별 설계리론수준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각 설계기관과 교육기관들에서는 특히 원림경관설계의 세계적수준을 세밀히 고찰하고 원림조성기준과 방법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사업을 잘하며 우리식의 경관설계리론을 확립하고 독창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결정

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도시경영부문과 설계기관들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수도와 전국의 도시, 군소재지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원림설계를 과학리론적으로 선행시키고 원림화사업을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특성과 현대적추세에 맞게 발전지향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우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부문 사업은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제고하고 인민들을 우리식 사회주의문명으로 선도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주체건축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형태의 살림집내부를 돌아보시며 건설정형을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들의 내부가 구조적으로 주민들의 가정생활에 편리하게 잘 꾸려졌다고 하시면서 근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살림집들을 또 다시 안겨줄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뜻깊은 태양절전야에 각 부문들에서 선발된 대상세대들에 입상증을 전달해주고 준공식을 의의있게 진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본사기자



사설

태양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안고 자주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가자

민족의 존엄이 우주에 닿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이 나라 강산 그 어디에나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뜻깊은 태양절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꽃피는 4월 겨레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력사의 그날로부터 세월의 년륜은 어느덧 백열년을 아로새겼지만 해가 갈수록 더욱 빛을 뿌리는것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민족과 인류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고 더욱 간절해지는것이 절세위인에 대한 이 나라 인민들과 우리 겨레의 다함없는 그리움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민족의 대경사였다.

돌이켜보면 부패무능한 봉건 통치배들의 사대와 당파싸움,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쇠약해져서 쇠약해진 조선이 20세기 초 일제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것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더없는 수치이고 불행이었다.

겨레의 운명이 칠성관에 놓이고 삼천리강토에 암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바로 그때 만경대에서 누리를 밝히는 태양이 솟아오른것은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억눌리고 신음하는 조선인민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며 일찍부터 나라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무장한 강도 일제는 무장으로 때려부셔야 한다는 독립의 탁월한 방략을 제시하시고 20성상의 간고한 항일대전을 승리로 조직명도하시였다.

백두산 줄기줄기와 압록강 굽이굽이, 만주벌판에 항일선렬들의 피어린 자욱이 오늘도 력력하고 압록의 삼천리에 민족재생의 희망을 주며 그날에 메아리치던 항일의 총성이 지금도 들려오는듯싶다.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일제의 포악무도한 악정과 민족말살책동으로 꺼져가던 겨레의 운명을 기적적으로 소생시켜 주신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우리 국가와 민족앞에 쌓으신 영구불멸할 크나큰 업적이다.

이 땅우에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 자위로 위용떨치는 나라,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가 일떠서게 된것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여 겨레가 받아안은 남다른 행운이고 복이다.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치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여 이 땅우에서는 인민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공화국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국가로, 참다운 인민의 세상으로 온 행성에 빛을 뿌리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이 겪는 분렬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자이다.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이 계속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시종일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범죄적인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부조선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시분도 수령님이시고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조선이나 《두개 조선》이나 하는 두 로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졌던 시기에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과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불려일으키신분도 수령님이시였으며 격페상태에 있던 북과 남 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북남사이에 공동성명과 합의를 체결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

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근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3대헌장이이다.

민족자주정신과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가 구현된 조국통일3대헌장이 있어 우리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속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거족적인 자주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이다.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

하시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으신 또 하나의 커다란 업적으로 된다.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대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일에 국의 길에 나서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한때 길을 잘못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민족을 위한 통일애국의 길에 들어설수 있는것도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품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민족대

단결의 사상과 리념,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 현명한 령도에 의해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어 북과 남, 해외에서 각 계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진정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겨레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불세출의 위인이시고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평생의 로고와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유훈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수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성원들의 숭고한 도덕리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는 여기에 자주통일과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은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겨레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우리 겨레는 통일의 길에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이고 정세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바치신 자주통일위업은 또 한분의 결출한 위인을 모시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사상과 령도, 품도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절세의 위인, 조국통일의 구성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드는 길에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을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방침으로 제시하신데 이어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련이어 펼치시여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현시기 북남관계악화의 원인과 그 해결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여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확고한 신심과 의지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것이아말로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또 하나의 최대의 영광이고 행운중의 행운이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양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찬란한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삼천리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애국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것이다.

한평생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뜻깊은 태양절을 맞게 되는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더욱 불태우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셨으며 민족과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시어 민족의 아버지, 주체의 태양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는 자주의 기치높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시고 이 땅을 통일변혁하는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우신 자주정치적 거장이시고 주체의 태양이시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렁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깊게 절감하는 우리 겨레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어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민족번영의 든든한 토대를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으로 돌이켜본다.

이전 쓰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편파적인 붕괴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던 지난 세기 90년대 초에 조선을 방문하였던 일본의 한 정객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였었다.

«...바로 그무렵은 동유럽 여러 나라가 붕괴되는 때였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평온을 유지하고있는것이. 무엇때문인가.»

이것은 당시 그 한사람의 의문이기에 국제사회가 초미의 수순끼리로 제기하고있던 문제였다.

어떻게 되어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이 현이 붕괴되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존엄을 지켜내는데였는가.

그무렵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외국의 저

명한 인사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적이 있었다.

석상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동유럽나라들이 다 망하였지만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사회주의길로 계속 갔듯이 나아갈수 있는것은 우리 당이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처럼 풀고싶어하던 수수께끼에 명쾌한 답을 주시었다.

주체! 바로 이것이!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인류적 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 이시다.

그이께서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시였기에 공화국은 한 국제정세가 어떻게든 간 절멸의 주저나 동요를 모르고 뜻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곧바로 걸어나갈수 있는 것이었다.

자주,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한생의 혁명신조이며 혁명실천이었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총화하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쓰시었다.

«나는 한평생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싸워왔다. 나의 일생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력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주석께서

어다 쓰라고 권유한 일이 있었다. 대국이 《아》 하면 《아》, 《배》 하면 《배》 하며 다른 나라들이 사대와 모방의 기류에 휘말려들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것을 단호히 배격하시였다.

우리가 갈길은 우리가 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의 신념이고 배짱이었다. 그 어떤 외세의 전횡과 강권을 추호도 용서치 않았으며 견결한 자존심이 있었다.

우리가 갈길은 우리가 안다. 바로 여기에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견주지 못할 투철한 자주의 신념과 의

가 있으며 나라와 민족,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있는 것이다.

민족자강의 신념과 의지를 가진 민족은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자기 운명을 당당히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였던 주체83(1994)년 4월 어느날 조선을 방문한 미국 《워싱턴타임스》기자단을 만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시며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시였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민족이며 조선의 미래를 개척할수 있는 힘도 조선민족에게 있다. 다른 사람이 조선민족

의 통일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없다. 외세의존은 땅국의 길이며 민족자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이다. ...

기자단의 방문소감이 그대로 세계에 전해져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때로부터 한해 후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 켈리그 해리스의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담이 발표되었다.

«내가 1994년 8월 22일 카리엔에서 초청되어갔을 때... 카리는 나에게 (김일성주석을 정치지도자로 존경한다.)고 하였다.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직대통령 카터의 말은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은바 있는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하였다. ...

김일성주석의 정치리념을 굳이 한마디로 평가하라고 하면 김일성주석은 민족자주를 앞세운 민족주의자라고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김일성주석은 언제나 민족문제를 모든 일의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김일성주석이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고 빛내어나가시는 것은 참으로 존경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녕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드물지 않는 역력 불변의 정치신조였다. 우리 겨레에게 대대손손 간직하고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의 넋을 안겨주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펼쳐주신 아버지가수령님.

그이께서는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한 조국통일3대원칙의 첫번째 조항도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그이께서는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언제나 자주의 원칙밑에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이 자주의 원칙이 새 세기에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민족공동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승화되어 삼천리의 행성의 각지로 메아리쳐갔다. 하기에 겨레는 오늘도 자주통일을 소리높이 웨친다.

진정 주체의 기치높이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민족자주위업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었으며 오늘

은 또 한분의 천출유일인신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에서 총핵을 이루는 참으로 존경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녕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드물지 않는 역력 불변의 정치신조였다. 우리 겨레에게 대대손손 간직하고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의 넋을 안겨주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펼쳐주신 아버지가수령님.

그이께서는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한 조국통일3대원칙의 첫번째 조항도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그이께서는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언제나 자주의 원칙밑에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이 자주의 원칙이 새 세기에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민족공동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승화되어 삼천리의 행성의 각지로 메아리쳐갔다. 하기에 겨레는 오늘도 자주통일을 소리높이 웨친다.

진정 주체의 기치높이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민족자주위업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었으며 오늘

은 또 한분의 천출유일인신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에서 총핵을 이루는 참으로 존경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녕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드물지 않는 역력 불변의 정치신조였다. 우리 겨레에게 대대손손 간직하고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의 넋을 안겨주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펼쳐주신 아버지가수령님.

그이께서는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한 조국통일3대원칙의 첫번째 조항도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그이께서는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언제나 자주의 원칙밑에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이 자주의 원칙이 새 세기에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민족공동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승화되어 삼천리의 행성의 각지로 메아리쳐갔다. 하기에 겨레는 오늘도 자주통일을 소리높이 웨친다.

진정 주체의 기치높이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민족자주위업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었으며 오늘

은 또 한분의 천출유일인신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에서 총핵을 이루는 참으로 존경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녕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드물지 않는 역력 불변의 정치신조였다. 우리 겨레에게 대대손손 간직하고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의 넋을 안겨주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펼쳐주신 아버지가수령님.

그이께서는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한 조국통일3대원칙의 첫번째 조항도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그이께서는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언제나 자주의 원칙밑에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이 자주의 원칙이 새 세기에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민족공동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승화되어 삼천리의 행성의 각지로 메아리쳐갔다. 하기에 겨레는 오늘도 자주통일을 소리높이 웨친다.

진정 주체의 기치높이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한 려정에서

조국통일을 자신의 당면과업으로 여기시고

주체55(1966)년 여름 어느날 밤이

나라의 분별로 우리 겨레가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심려하시며 잠 못이루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82(1993)년 3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공화국을 방문한 제미동포들을 만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선생들을 만나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며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어 그이께서는 화기에대한 동포들의 부인기속에서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담화를 나누시였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민족

는 일군들에게 밤이 되면 남조선인민들 생각이 더 난다고, 아마도 밤에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모양이라고 하시며 남조선인민들 생각만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다고 절절하게 말씀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쳐야

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나의 희망이라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나는 아직 조국개선의 인사도 남녘동포들에게 하지 못했다고, 조국통일의 인사를 겸해서 해야겠는데 분열의 력사만이 길어가고있다고, 조국해방이 지난날 나의 당면과업이라면 조국통일은 오늘날 나의 당면과업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기치야래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 하시였다.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이역땅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을 묶어세워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가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조선사람은 조선을 위한 애국을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조선사람은 조선을 위한 애국을 하여야 한다

주체81(1992)년 가을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강일선생이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구면지기를 만나신듯 강일선생을

반겨맞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의 안부도 물으시고 동포사회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분투하고있는 애국활동을 높이 평가

하시였다.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존함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우리 동무들은 내 이름을 한별이라고 고쳐 불렀다. 저희들끼리 이름을 지어가지고는 내 의향에는 관계없이 《한별이》, 《한별이》 하고 불렀다. 한문자로 표기하면 一(일성), 즉 한별이라는 뜻이었다.

우리 동무들과 함께 내 이름을 김일성(金日成)으로 고쳐 부르고 발기한것은 변대우를 비롯한 오가자의 유지들과 최일천과 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었다. ...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찬연히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은 그이를 민족의 태양, 조선혁명을 위한 령도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받들어올린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이 지어드린 이름이었다.

당시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이며 열렬시인인 김혁은

수령님을 조선의 밤하늘에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는 새별로 높이 칭송하였다.

안창호, 손정도, 오동진을 비롯한 민족주의 자들도 김성주학생이 새세대 지도자로 나타나것은 우리 민족의 행운이며 동천의 새별과 같은 존재다. 그 뜻에서 새별이라는 아호로 칭송하자고 일치하게 의사를 모았다. 그후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아버지수령님께 《김일성》이라는 태양의 존함을 지어 올리였다.

태양의 구성은 빛과 열, 인력이다. 태고적부터 태양의 따스함과 은혜로움을 알게 되면서 인류는 자기들이 숭상하는것에 태양의 이름을 달고 신성시하며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장구한 인류사의 어느 시대, 어느 력사에서 인류가 숭상한 인간태양은 존재하지 않았고 어느 성이나 위인도 태양의 이름으로 호칭된적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을 10대의 그 시절에 벌써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따랐다.

혁명전적지의 구호나무들에 새겨진 《김일성대장 만민의 태양이시다》, 《저자손은 받들자 절세의 영웅 김일성대장》 등 구호문헌들은 그이를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겨레의 경렬한 지향과 의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우리 겨레만이 아닌 국제사회도 위대한 수령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받들어모시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세계를 밝히는 영원한 태양》, 《인간에게 더는 없을 위대한 인간태양》으로 칭송하고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김일성학원, 김일성도서관, 김일성거리 등과 같이 그의 존함을 학교와 건물, 거리들에 모시였다. 전 미국대통령 카터도 김일성주석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건국

홍정욱

겨레의 통일속망을 풀어주시려고 (4)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신 후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모든 통일에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당시 외세와 남조선의 반민족, 반통일세력은 미군의 남조선장기주둔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유엔 제3차총회에서 새로운 《유엔조선위원단》을 조작해내려고 획책하고있었다. 한편으로는 남조선에서 《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들을 조작하고 모든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인민들의 조국통일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북과 남의 통일애국력량을 하나로 굳게 결속하는것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자주적평화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초미의 문제로 나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8(1949)년 5월 16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연설과 6월 11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을 총집결하는단일한 통일전선조직체로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무렵 남조선로동당, 민주독립당, 근로인민당, 남조선청우당, 사회민주당, 남조선민주노동당, 조선로동조합전국평의회 등 남조선의 8개 정당, 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할것을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에 제의하여왔다.

이리하여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하신 남조선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제의에 대한 회답서를 채택하고 5월 25일 평양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것을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에 호소하였다.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과 관련하여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대중속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과 관련한 해설선전사업을 벌리는 한편 결성대회준비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였다.

주체38(1949)년 6월 25일부 28일까지 평양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참석밑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가 소집되었다.

대회에는 남조선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들어가있지 않던 24개의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들까지 포함하여 북조선의 71개 정당, 사회단체로 704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이 정식으로 결성되었으며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제 대치하여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주동적조치들을 현이 내놓았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로 수립된 조국전선은 주체39(1950)년 6월 7일 확대회의를 열고 북과 남의 모든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과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평화적조국통일방책추진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주체39(1950)년 6월 16일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일층 촉진시키기 위한 주동적인 대책으로서 평화적조국통일에 대한 대책을 취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요청하였다.

6월 19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전선중앙위원회에 요청을 접수하고 평화적조국통일추진에 관한 문제와 관련한 다음 《평화적조국통일추진에 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공화국이 제안한 이 새로운 방안은 미국과 리승만 《정권》의 전횡도발책동기 구도에 이르러 평화통일실현의 가능성이 사실상 과반되고있던 당시의 사정상 시기에 어떻게 하나 조국과 민족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통일을 끝까지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하여 발전시킴에 있어서 사변적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전선결성이후에도 《조국의 평화적통일

을 위한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유엔조선위원단〉을 반대배격하자》, 《우리 당의 평화적조국통일방안을 실현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결론과 연설들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 어떤 수단으로써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전적 조선인민의 거족적투쟁을 가로박수 없게 되자 미국은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남조선군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정정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이와 함께 38°선일대에서 군사적도발을 더욱 강화해나갔다.

이에 대치하여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주동적조치들을 현이 내놓았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로 수립된 조국전선은 주체39(1950)년 6월 7일 확대회의를 열고 북과 남의 모든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과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평화적조국통일방책추진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주체39(1950)년 6월 16일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일층 촉진시키기 위한 주동적인 대책으로서 평화적조국통일에 대한 대책을 취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요청하였다.

6월 19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전선중앙위원회에 요청을 접수하고 평화적조국통일추진에 관한 문제와 관련한 다음 《평화적조국통일추진에 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공화국이 제안한 이 새로운 방안은 미국과 리승만 《정권》의 전횡도발책동기 구도에 이르러 평화통일실현의 가능성이 사실상 과반되고있던 당시의 사정상 시기에 어떻게 하나 조국과 민족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통일을 끝까지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하여 발전시킴에 있어서 사변적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전선결성이후에도 《조국의 평화적통일

본사기자 홍범식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시여

탁월한 령도, 창조와 전변의 10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때로부터 어드레 10년이 흘렀다. 10년은 화려한 반만년 민족사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10년간 공화국에서는 세월을 주름잡으며 기세차게 내달려 천지개벽의 기적

적성과들이 이루어졌다. 적대세력의 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사태와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었지만 공화국은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국가발전의 새로운 시대, 자존과

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공화국이 이룩한 이 위대한 성과와 값진 승리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데 인민의 영리한 존엄과 운명, 미래가 달려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사상결단의 국방공업혁명의 길, 미지의 생눈길을 굴함없이 헤쳐오시었다.

공화국의 국방정책의 정당성과 그 빛나는 생활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파시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한다고,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기며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주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승리와 영광, 자주적인 인민의 존엄과 영광을 영원하다는것을 더욱 굳게 확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자주를 공화국의 정치철학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서 증핵으로 보시고 언제나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계신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주에 민족의 높은 존엄이 있고 국가의 강대함과 끝없는 변영이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자주와 한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자주의 길을 따라 펼쳐져 전진해온 10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민족대국상을 12월, 온 민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던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령도하여오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드림없는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한 뜻깊은 경축광장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고 다시금 힘있게 천명하시였다.

자주의 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공화국의 력사와 더불어 그 진리성과 필승불패성이 뚜렷이 확증된 그 길을 따라 혁명령도의 자욱자욱을 능수능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태어난 자강력제일주의라는 뜻깊은 시대어에도 공화국의 인민을 높은 민족자존의 정신을 지닌 위대한 인민으로 역세계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성스러운 혁명령도가 력력히 어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주제105(2016)년 1월 1일에 하신 뜻깊은 신년사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제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임을 힘있게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자강력제일주의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총핵적인 문제로 내세우시였으며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시지도의 길에서도 자력자강, 간고분투의 혁명적기상을 높이 발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공장과 농촌, 어촌과 건설장 그 어디에 가시여셔도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가기로든 거대한 투쟁의 불길을 지켜주시고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을 보실 때면 그리도 기쁘시어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천만의 심장마다에 깊이 심어 주신 철세위인의 비범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자기가 정한 길로 역세계 전진해올수 있었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적존엄이 무참히 짓밟히게 된다는것이 지나간 력사만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보여 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조국과 인민의 굳건히 수호하고 장래의 운명까지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국가방위



주체의 사회주의길을 따라 기적과 변혁을 이룩해온 10년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때로부터 지난 10년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생활력, 그 필승불패성이 더욱 뚜렷이 확증된 자랑찬 행로이기도 하다.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변함없는 사회주의의 한길이라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주체의 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이 깃들어 있는 고귀한 혁명유산이고 공화국의 인민모두가 안기여사는 행복의 보금자리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사회주의를 변함없이 지키고 빛내어갈 의지를 더 굳게 가다듬으시며 인민대중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공화국을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꽃피고 대대손손 복락을 누려갈 참된 삶의 터전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주시며 눈물겨운 위대한혁명의 길을 끝없이 이어오시였다.

하늘아래 첫 동네 백두산 기슭에 인민의 리상향을 일떠세우시려 걸고걸으시던 찬눈길, 세상이 부러워할 문명의 별천지에서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날 그날을 기쁨속에서 그려보시며 넘고넘으시던 양덕의 고개길, 우리 인민

들에게 훌륭한 새집을 하루 빨리 안겨주고싶은 불같은 일념으로 찾고찾으시던 건설장의 발걸음, 새벽길들은 그 열마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의해 온 나라 방방곡곡에 궁전같은 옥아원과 애육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들이 일떠서고 거기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이 설음이란 말조차 모르고 행복하게 자라고있다.

또한 온 나라 아이들이 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속에 푸른 꿈을 꽃피우며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고 있고 뜻밖의 큰물도 집과 가산을 잃은 피해지역 인민들이 재난으로 잃은것보다 더 큰 행복을 가슴가득 받아안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지난 10년간 공화국의 인민들은 과감한 투쟁으로 능수능아온 사회주의의 강국건설사에 기적과 변혁의 신화들을 아로새겼다.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와 련이어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전체 인민이 건인불발의 의지와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사회주의의 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2012년,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려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2013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와 같은 주제건축의 기준과 표준으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회한하게 일떠선 2014년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사회주의선명마름들이 우후죽순마냥 솟구쳐오른 2015년의 자랑스러운 기록도 지난 10년 사회주의의 강국건설사에 새겨져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고 성대하게 진행되고 주제조선의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전환이 이룩된 2016년의 감격에 이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고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위대한 승리의 해 2017년의 그 격경에도 인민의 성스러운 령도에 아로새겨졌다.

공화국의 자주로선과 전략적결단에 의하여 대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

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인 해 2018년과 국가와 인민이 난국을 맞받아 도도히 전진비약해나가는 강인한 기상과 막강한 잠재력을 크게 파시한 2019년에 대한 추억도, 류례없이 엄혹했던 시련과 격난을 뜻깊이 이겨내고 조선로동당 창건 75돐을 멋있게 맞이하던 2020년 10월의 그 환희로운 경축광장의 밤도 지나온 위대한 10년사에 담겨져있다.

사상초유의 엄혹한 난관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으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2021년의 승리는 또 얼마나 천만의 심장을 뒤흔들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아래 이룩된 이 모든 눈부신 기적과 승리들은 천만인민으로 하여금 철세위인이 계시어 주체의 사회주의의 위업을 승승장구할것이며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의 강국, 천하제일락원은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이라는 철석의 의지를 가슴마다에 더욱 굳게 간직하게 하고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주의 한길, 사회주의의 한길만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으며 그 성스러운 길우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실세의 위인을 전두에 높이 모시어 동일의업수행의

오늘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은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력사적대업을 반드시 실현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지금도 우리 겨레는 주제 101(2012)년 4월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하신 연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천명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실 굳은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력

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러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평화보장, 련방제실현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구현하여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방식으로 제시해주시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인민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해해나가야 한다는 북남관계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온 겨레를 한몸에 안아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대립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 뜨거운 덕과 인품에 이끌리어 남조

선과 해외의 각계층 인사들과 동포들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길에 떨쳐나 참된 삶을 빛내이고 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계시어 항상 마음이 든든하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조선의 시간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실것이다.》, 《김정은령도자는 정치계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국제사회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세계정치계의 거성이다.》, 《김정은령도자는 능란한 협상력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에 크게 기여하시는데 대해 사람들은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

이것이 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리치는 우리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찬란의 목소리이다.

참으로 철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조국통일의 력사적대업을 반드시 실현되야만할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10년》이 진행되고있다.

전람회장에는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주제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이 땅우에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자존과 변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

의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성스러운 혁명령도사를 전하는 영상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위대한 수반이신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천하제일의 위인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강국의 위상을 떨쳐가는 민족의 크나큰 자공심을 가슴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전람회장에는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후손만대의 변영을 담보하는 최강의 군사력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사진문헌들이 주제별로 모셔져있다.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흥강국의 휘황한 앞날을 당겨오기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다그쳐나가는 공화국인민의 강웅한 기상과 활기찬 투쟁모습, 내 조국의 발전변모를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어있다.

개막식이 지난 3월 27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겨레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만경봉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새차게 끓어오르는 이 땅위에 4월의 봄이 왔다. 오늘도 수많은 사연들 안고있는 만경봉에 밝은 빛을 뿌리며 태양이 솟아올랐다. 만경봉! 유서깊은 만경대교향집을 거슬러 올라가는 력사의 봉우리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여있는가. 해발고가 수십m 밖에 안되는 이 나지막한 산봉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 숭엄히 자리잡게 되었는가. 주체1(1912)년 4월 15일, 바로 그날부터였다. 우리 민족이 망국의 통분속에 일일천추로 고대해온 위대한 태양이 만경대에서 솟아오른 그 날로부터 여기 만경봉기슭의 일 만경치가 조국강산에 자기의 황홀한 자태를 더욱 드러내지 않았던가. 예로부터 만가지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라 하여 만경봉이라 불리워온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나라찾을 큰뜻을 키워 가시던 불멸의 혁명사적들이 수 많이 깃들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년시절의 범상치 않은 기질과 장군다운 담력과 배짱, 뛰어난 예지와 평민술이 뜨겁게 어려있는 군함 바위며 학승터, 씨름터와 무지개 작전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로동의 결과고 소관한 근로자들 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승고한 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램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신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인민의 꿈과 리상이 융화된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 고있다. 은혜로운 태양의 해발 아래 인민의 웃음꽃 만발한 행복의 거리들에서 너도 살고 나 도 살고 온 나라 인민이 안겨산다는 부듯함으로 눈곱을 적시며 나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말하였다. 《애야, 이처럼 맛있는 거리들을 아버지님수업에서 훌륭히 익혀서 인민들에게 안겨주게신다.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그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나.》 리영철

력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로동자들의 존엄과 권익을 담보하는 로동법령

나라였던 세월 조선의 로동자들은 일제에 의해 가장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주체35(1946)년 6월 20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전 로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로동생활분야에 남아있는 일제의 착취와 억압의 잔재들을 청산하기 위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하신 연설 《로동법령초안에 대하여》에서 로동법령을 제정하여 할 력사적발전성과 의의, 로동법령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밝히시고 로동법령 초안을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속에 널리 침투시키도록 하시었다. 로동법령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6월 24일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발표하시었다. 로동자, 사무원들을 위한 8시간로동제의 실시, 소년로동의 금지, 모성과 녀성로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동일한 로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제, 사회보혜제 등을 포함하여 총 26개조로 구성된 로동법령은 새 조선건설의 주력부대인 로동자들의 절실한 리익을 반영한 민주주의적인 법령이었다. 로동법령은 발표되자마자 전체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이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새 조국건설에 더욱 힘차게 떨치나 서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 하였다. 로동법령이 실시됨으로써 북조선에서 물질적부의 생산을 높이면서도 근로자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적조건이 마련되게 되었다. 또한 민주주의적권리와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과 세계의 많은 나라 로동계급과 동방의 피압박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본사기자 림광훈

머칠것이었다. 내가 일곱 살 난 손녀애를 데리고 새집들이경사를 앞둔 송화거리로 지날 때였다. 특색있게 일떠선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초고층, 고층살림집들에서 고운 눈길을 떼지 못하던 손녀가 문득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 새 거리들도 우리가 사는 거리처럼 정말 멋있어요. 그렇지요?》 손녀애가 포랑포랑 하는 말을 듣느라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 찼어왔다. 우리가 사는 거리! 우리가 사는 미래과학자거리처럼 현대적인 새 거리가 여기에도 웅장화려하게 일떠섰으니 나 어린 손녀가 자기 가 사는 거리처럼 참말로 멋있다고 하는것 아니라. 멋있고 훌륭한 우리 사는 거리, 이 말을 가만히 외우느라니 몇해전 미래과학자거리 새집들이하던 그날의 격정이 되새겨졌다.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궁궐같은 새 살림집, 바로 그곳에서 평범한 교육자가정인 우리가 살 작전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로동의 결과고 소관한 근로자들 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승고한 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수필 우리 사는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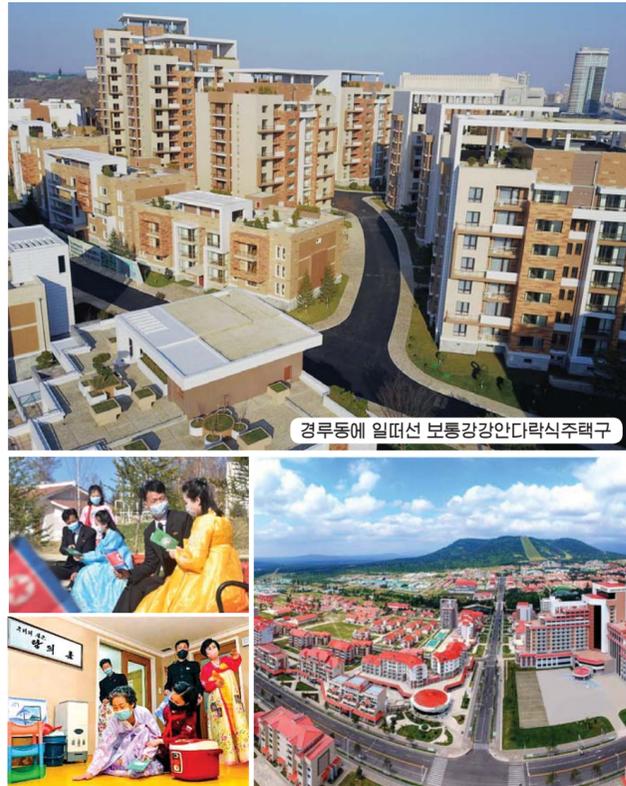
열화같은 인민사랑으로 우리 조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가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지구상에는 고층건물들이 하늘을 찌를듯이 치솟고 나뭇대로 화려함을 뽐내는 거리들이 적지 않지만 그 번쩍거리는 걸거리마다에서 몸담을 제 집 한칸이 없어 한 자에서 헤매이는 불행한 사 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신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인민의 꿈과 리상이 융화된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 고있다. 은혜로운 태양의 해발 아래 인민의 웃음꽃 만발한 행복의 거리들에서 너도 살고 나 도 살고 온 나라 인민이 안겨산다는 부듯함으로 눈곱을 적시며 나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말하였다. 《애야, 이처럼 맛있는 거리들을 아버지님수업에서 훌륭히 익혀서 인민들에게 안겨주게신다.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그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나.》 리영철

인민의 웃음 넘쳐나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이제 머지않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속에 특색있게 일떠선 보통강강안다락식주래구의 호화로운 살림집들에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는 각 부문의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보금자리를 꾸리게 된다. 평양의 동쪽관문에 일떠선 송화거리에서도 평범한 근로자들이 돈 환골 안내고 사랑의 보금자리에 드는 행복한 모습이 펼쳐지게 된다. 지금 공화국의 수도와 지방들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구상하시고 펼쳐시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건설전투이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난관이 겹쌓인 간고한 조건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도건설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가며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열어놓는 새로운 건설혁명을 일으키게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었다. 이에 따라 평양시에서만도 가까운 기간에 5만세대 살림집을 건설하게 되며 그 첫걸음으로 송신, 송화지구에 1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일떠세웠고 현이 화성지구에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진행하고있다. 화성지구에서는 앞으로 3년 안팎에 수만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봉사시설들이 들어앉은 웅장한 거리들이 일떠서고 새 주민행정구역이 생겨 나게 된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건설전투는 평양시뿐 아니라 검덕지구와 각지 농촌들을 비롯 한 전국도처에서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지난해에 승리적으로 결속한 삼지연시 건설을 통하여 지방건설, 농촌건설의 본보기도 마련하였다. 지방건설, 농촌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화국은 지방의 설계와 건설력량을 보강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모든 시, 군들에 세 멘트를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것을 정책화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해 일떠서는 사 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로 하여 공화국은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되고있으며 행복의 보금자리들에서는 인민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입는것과 함께 쓰고살 집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 하나 세상을 둘러보면 주택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문제되고있다. 특히 남조선에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여 집없는 사람들의 《내 집마련의 꿈》은 더욱 로원한것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의 경제정의실천 시민연대(경실련)는 《현재 임금로동자의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서울 25평(83㎡) 짜리 아파트 집 한채를 사려면 36년이 걸린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렇게 제 집 한채를 마련하는것이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마저 집값이 날마다 경천경천 뛰어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남조선에서는 집문제에 결혼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날로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에 결코 새로 짓는 주택이 없어서도 아니다. 집을 지어도 그것이 주민들의 주택문제해결에 이르지 않는것이 문제이다. 돈많은 부자들은 집을 몇채, 지어 몇십채씩 가지고 부동산투기행위로 배를 불리우는 반면에 가난한 절대다수 인민들은 돈이 없애 제 집 한채 마련할수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사회와 《정부》를 원망하고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집지에는 이런 글이 올랐다. 《집을 구하려 다닌지 벌써 한달하고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매고있다. 처음에는 내게 주어진 권리라 당당하게 집을 구하려 다니지만 한바퀴 돌고나면 한없이 초라해진 나 자신을 발견했다. 서울엔 집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살 집은 왜 없는가. ...집을 구하려 다닐 때가 가장 큰 수치심을 경험하는 시기였다. 특히 한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작 1억원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할 생각을 하냐는 핀잔을 듣고서는 주거적벽이라는 거대한 좌절을 맛봤다. 지금의 내 처지에 더 좋은 주거환경은 언급생심 아깝다.》 《내 집마련의 꿈》, 《한국경제》, 《프레시안》 등 언론들도 남조선 각계층이 집값과 전세값폭등으로 하여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있다고 하면서 주택문제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글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고 《집값때문에 죽겠습니다.》, 《부자인 부모가 없으면 내 집마련 못해》, 《부동산난국으로 하여 내 집마련의 꿈을 포기해

어려운 집 한채 마련할수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사회와 《정부》를 원망하고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집지에는 이런 글이 올랐다. 《집을 구하려 다닌지 벌써 한달하고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매고있다. 처음에는 내게 주어진 권리라 당당하게 집을 구하려 다니지만 한바퀴 돌고나면 한없이 초라해진 나 자신을 발견했다. 서울엔 집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살 집은 왜 없는가. ...집을 구하려 다닐 때가 가장 큰 수치심을 경험하는 시기였다. 특히 한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작 1억원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할 생각을 하냐는 핀잔을 듣고서는 주거적벽이라는 거대한 좌절을 맛봤다. 지금의 내 처지에 더 좋은 주거환경은 언급생심 아깝다.》 《내 집마련의 꿈》, 《한국경제》, 《프레시안》 등 언론들도 남조선 각계층이 집값과 전세값폭등으로 하여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있다고 하면서 주택문제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글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고 《집값때문에 죽겠습니다.》, 《부자인 부모가 없으면 내 집마련 못해》, 《부동산난국으로 하여 내 집마련의 꿈을 포기해



경주동에 일떠선 보통강강안다락식주래구



삼지연시



남조선에서

차곡차곡 꿈을 짓는 노숙인들

서울 곳곳 거점에서 짐을 짓고 있는 노숙인들

신론 권매미 사건의 파격적 대결

남조선에서 동족에 대한 《신제라적》 망발이 울려나오기도 며칠이 지났다.

과국적후파에 대한 상상이나 대응책도 없이 핵강국에 대해 선불질을 하겠다는 어리석은자의 망용은 북남관계를 수년간의 엄중한 계선으로 돌려세우기에 충분하다.

어떤 참혹한 재난을 초래하게 되었는지 생각할 줄 모른다면 허바닥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했다.

공화국은 이미 남조선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다시말하여 남조선군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공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화국은 시종일관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하기에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 천명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을 대결상대, 전쟁상대인 《주적》으로 막연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동맹강화》와 합동군사연습에 광란적으로 매달리며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 불구름을 몰아오려 하고 있다.

지금도 남조선내부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신제라적》 망발을 비호두둔하고 외세와 작당하여 북침전쟁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심상치 않은 대결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제라적은 선제적위협이 상존할 때 취하는 조치》, 《안보위협

시 오차없이 립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것들이 주철대는 것이나 그 무슨 전문가생세를 피우는 자들이 복이 《도발에 나설 명분을 쟁는다.》는 아전인수격의 《판단》을 내놓고있는 것은 단적인 실례이다.

입은 생각을 묻어두는 덮개로 되어야지 허세나 떨기 위한 망발을 쏟아놓는 하수구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화국의 주적은 전쟁이지만 한사코 전쟁대결의 불질을 하는 자들까지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

그렇게도 주적이 되고싶은가.

겁에 질린 피해망상이든 어리석은 오만이든 동족에 대한 그 어떤 망발이나 모략책동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그 결과는 결코 남조선호전세력이 망상하던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핵강국에 대해 선제적공격을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호랑이한테 덤벼드는 하루강아지의 격에 불과하다.

알만큼 말해주었음에도 리해를 못하는 것은 천치들에게서나 나라는 중상이다.

그런 바보들때문에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일로에 치달고 남조선인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갈수록 커만 가는 것이다.

충고하건대 물인지 불인지 가리지 못하고 마구 날뛰다가 제스스로 재난을 들뜨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 필

자멸을 재촉하는 전쟁대결망동

미국노들이 외세와 배꼽 맞추는 곳에서는 언제나 민족반역의 음모가 꾸며지기 마련이다.

얼마전 남조선군부가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 남조선미국일본합동참모본부 의장회의라는데서 외세와 작당하여 새로운 북침작전계획작성을 위한 《전략기획회의》에 정식 서명할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앞으로 1~2년내에 새 《작전계획》이 작성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예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새 《작전계획》에는 공화국의 고도화된 각종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화된 전쟁대결을 대대적으로 벌릴 정책을 꾸미고있다는 실증이다.

이미전부터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외세와 작당하여 수 많은 북침전쟁각본들을 짜놓고 어리석은 망상을 이루어

보고 발버둥쳐왔다는 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조선반도에서의 전면전과 허황한 《금변사태》, 《국지도발》, 《신제라적》을 가상하여 작성한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15》 등 북침전쟁각본들과 그에 따라 남조선에서 해마다 미국과 연합하여 벌리는 각종 명칭의 북침전쟁연습들이 그러한 례들이다.

최근 군부호전세력속에서



러져나온 《신제라적》 망발과 함께 벌어지는 새 《작전계획》 수립책동은 그들이 북침전쟁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현을 위해 얼마나 분별없이 헤딩비고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육군미사일사령부, 《육군미사일전력사령부》로, 공군작전사령부상하방공유도탄사령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개편하는 늑골을 벌린지도 이러한 홍심의 발로이다.

더더욱 가증되는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북침전쟁을 노린 위험천만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전쟁대결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도 전쟁위험은 시시각각으로 커지고있다.

한갓 미국의 전쟁하수인들에 불과한 것들이 자신을 과신하며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공화국을 감히 어찌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은 자멸을 앞당기는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기 전에 그것이 몰아올 감당할수 없는 과국적후파에 대해 심고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후회는 언제나 늦는 법이다.

최정선

한 인간에 대해 알려거든 그의 주위사람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하는가를 통해 그 사람의 수양과 인격, 품성 등 인간됨을 알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의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의 측근들을 보 고도 잘 알수 있다.

현재 윤석열주위에는 그의 당선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1등공신》들이 20여 명 있다고 한다.

그들중의 대부분이 이전 보수 《정권》들에서 《보수개혁》, 《합리적보수》를 운운하며 친리명박과, 친박근혜와 계파싸움을 벌리던 자들이다.

그런가 하면 이전에 친리명박과 친박근혜의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서로 앙숙이었던 홍준표와 류승민에게 붙어다니다가 지금의 윤석열에

오물통에는 쉬파리들이 날아들기 마련이다

게로 발길을 돌린 인물들도 더러 있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여러 군소정당들로 전향한 인물들 일명 《월세정치인》들로 지칭되는 사람들도 몇몇 잘된다.

윤석열이 만든 그 무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것도 지난 시기 동족대결, 친미사대를 선행하던자들,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사사건건 제동을 걸던 자들을 비롯해서 시대와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짓거리들만 하던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나 실이 윤석열당선의 《1등공신》이라는자들, 그

를 뒤받침한다는 것들은 하나와 같이 권력싸움에 이골이 난자들, 자기의 정치적 야욕과 치부를 위해서는 정치적소신도 서슴없이 쫓아내는 시정배들, 동족대결과 친미친일사대의식이 골수에 박힌 자들이다.

바보들은 자기보다 더한 바보를 만나면 좋아한다더니 어중이떠중이들이 뒤받침하는 윤석열자세가 권력야망과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신의도 헌신적처럼 저버리는 정치간사배, 동족을 《주적》으로 보는 대결광, 외세를 하나비모시듯 하는 매국역적, 제분수도 모르고 설치는 불능아가 아니더냐.

남조선인민들이 《《국민의

힘》의 우산밑에 숨어든 배신자》, 《인간의 품격을 저버린 추물》이라고 지탄하고있는 것처럼.

오물통에는 쉬파리들이 날아들기 마련인 것처럼 이런 간사배들의 주위에 온갖 추물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 지금 《정권교체》의 현훈중에 들떠있지만 그 격려운 상통의 추한 웃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가겠는지?

제 머리로 사고할 줄 모르고 제 손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지무능한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고두고 뒤편에 버려두고 역도년의 특대형정치추문사

시민들의 차거운 눈길

남조선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사부실 을 통산으로 옮기는데 대해 시민들의 눈길은 차겁기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옛날의 파천(임금이 재난을 피해 궁을 떠나는 것)에 비유하며 비난하고 있다.

어쩔수 없는 물리력에 의해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전란때문에 옮겨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미신때문에 옮겨려 한다는 설도 나도는

《검찰공화국》을 노래하고 《은덕》을 《천양》할 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남조선민심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대통령》 사부실이행은 월세방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하숙집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유분수이 뱉주에 아무순 경우 없는 짓이고 분수 모르는 도깨비장난이란 말인가라고 개탄하고있는 민심의 소리를 전하였다.

본사기자

적폐부활이 몰아온 정치적 혼란

남조선에서 4월입시 《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계발사업특혜의혹 등 윤석열과 그 일가족속들의 부정부패혐의에 대한 특검법안을 련이어 발의하고 윤석열과 《국민의힘》 패거리들에게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검에 대해 약속한만큼 선거가 끝났다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것들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폐지, 검찰에 예산편

성권부여 등을 사법공약으로 내 놓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진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이것은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투항하라는 강박이며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서슬루른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로골적인 기도라고 비난하면서 《오만한 집권군의 행세를 멈추라》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이 총장시절 함께 검찰개혁을 막아내셨던 검사들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끌어들이고 다음기 《정부》의 요직들을 검찰주의자들로 채우고있다고 공

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반윤석열, 반보수공세에 대해 《국민의힘》 패거리들은 《대선복복》, 《막무가내식생태》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초불민심》이 재개의식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쥐어주었지만 적폐청산은 고사하고 썩은 무우조차 베여보지 못한채 맥이 주저앉아버린으로써 적폐의 부활을 자초했다.》, 《민심을 거역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수 없다는 철리를 20대(대선)은 랑혹하게 보여주

었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독재자》, 《반개혁세력》으로 규탄하면서 윤석열패들이 지금처럼 론인이 되고있는 현안들을 계속 강압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치적혼란과 위기만을 더욱 산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추악한 권력야망,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남조선의 정치매물야들, 시정배들로 하여 남조선내부의 혼란과 대립은 날이 갈수록 첨예화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정권교체만이 평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

남조선잡지 《주간경향》이 장애인들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엄마는 세상쯤 소아마비를 앓은 뒤 장애를 가졌다. 조금이라도 걸으려 했지만 수시로 넘어졌다.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제약을 (어쩔수 없는 건가 보다.)로 여겼다.

딸은 비장애인이었다. 그는 장애인운 동활동가다. 본래 그의 꿈은 (부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다. 가난에서 벗어나 엄마를 호강시키고 싶었다.

그가 어릴 때 주변에선 그를 (소녀가장)이라고 불렀다. 강제로 주입된 (가장)이라는 정체성때문에 그는 (개천의 봉이 떼 집안을 살려야 한다.)는 강박을 가졌다.

딸은 엄마가 삭발한 순간을 잊을수 없다. 엄마는 할머니처럼 가난때문에 치료도 못받고 죽는이들을 살려야 한다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제폐지를 웨쳤다. 주변사람들이 삭발을 말렸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엄마는 삭발중 눈물을 흘렸다.

2012년 파주에서 장애를 가진 남매가 화재로 사망했다. 엄마는 장애인담배추모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은 12층이다. 매일 밤 생각한다. 불이 나면 아이들에게 엄마를 두고 먼저 대피하라고 해야겠다. 나는 운이 좋다면 구조될 것이다. 아이들이라도 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하

면서 내 처지가 너무 서럽고 슬프다.)

장애인들의 시위가 가끔 거칠게 비치곤 한다. 엄마도 시위를 했다. 엄마는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면 로역을 선택하기도 했다. 2015년과 2017년, 2021년 세차례이다. 벌금을 낼 형편도 안되었지만 무엇보다 저항의 의미에서 로역을 살기로 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들어가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했다. 이전에는 가난에서 벗어나야 자신과 가족을 돌러낸 모든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믿었다. 활동가로 일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가난에서 도망쳐나온다고 사회빈곤이, 차별이 끝나지는 않을것같다. 엄마를 보며 다 같이 잘사는걸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엄마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출근길 지하철타기》 시위에 한번도 빠짐없이 나갔다.

민감한 출근길에 지하철도에서 시위할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딸은 《정말 죄송하다. 이런 불편을 매일 느끼는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달라. 우리 함께 살아요.》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했다.

《가만히 있으면서 차별없는 사회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목소리를 내야 바뀔수 있다고 믿는다.》

본사기자



일본의 역사외곡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죄를 짓고도 아닌보살하며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오그랑수를 쓰는 속속들이 있다.

바로 일본이다.

얼마전 일본정부는 다음해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상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다.

교과서들에는 《일본군성노예제도》, 조선인노동자들을 《강제연행》했다는 표현이 삭제되었으며 조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도 저들의 《고유령토》라고 서술되어있다고 한다.

진실이 짓밟히고 날조와 외곡으로 얼룩진 교과서가 뼈저리게 통과되고있는 일본의 현실은 도덕적저열성과 파렴

치성이 극도에 이른 범죄국가의 추악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력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할수 있다.

더우기 침략과 약탈의 죄

한 태도문제이다.

일본이 역사교과서들에서 한사코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대본군성노예범죄제만 놓고봐도 그렇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로서 그 류를 찾아볼수 없는 만고죄악

역사외곡은 자멸의 길이다

일본의 역사외곡책동은 전면외곡, 전면삭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역사외곡에 이처럼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은 저들의 치명적은 죄악을 영원히 덮어버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사상과 페망

일본의 역사외곡책동은 전면외곡, 전면삭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역사외곡에 이처럼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은 저들의 치명적은 죄악을 영원히 덮어버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사상과 페망

에 대한 복수심을 주입시킴으로써 그들을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의 길로 떠밀려는데 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외곡할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세기 침략전쟁에 내몰렸던 전 일본군병사가 한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되어서 주입받고 신화를 사실로 믿고 전쟁에 내몰린 군인이었다. 아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참해를 입혔던, 그래서 파멸했던 우리들이다. 외국련 교과서가 교육현장에 들어가는 절대로 안된다.》

일본은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사기자 한일역